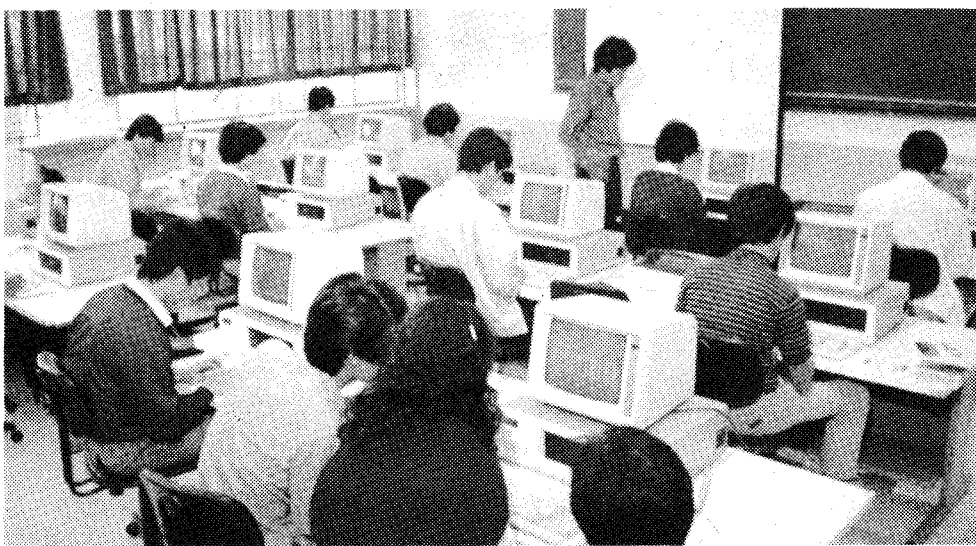


다양한 강좌 다양한 불만

개편된 교양강좌를 점검한다



▲수강신청중인 학생들

어려운 수강신청 원인은 부족한 강의실 교양교육 전담기구 설치 시급해

학문계열별 배분수제를 채택했다. 이는 글자 그대로 특정한 학문영역에서 각각 최소한의 학점을 이수하면서 폭 넓은 교양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강좌도 국어, 영어, 한 국사, 전산학 등 개론중심의 강좌에서 탈피하고 국어화법, 학술논문 작성법 등 주제별로 실질적 내용 중심의 과목을 개발해 편성했다. 그리고 교양필수 학점도 23학점에서 6~9학점으로 줄여 학생의 강의선택권을 넓혔다.

그러나 교양과목의 양적 확대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했다. 우선 늘어난 강좌수 때문에 수 강신청이 매우 어려워졌다. 전

에는 각 과목마다 학과가 정해져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으나 지금은 과목에 학년, 학교별 제한이 없고 수강과목의 인원제한 때문에 전교생이 모든 과목에 경쟁자가 된다. 따라서 인기 강좌는 빨리 마감되고 각 요일마다 과목이 알맞게 배정된 시간표를 작성하기 위해 수강신청기간동안 전산실앞에는 학생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지난 3월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는 1백3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강신청시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1.2%가 '수강신청이 빨리 마감된다' 20.6%가 강의 시간이 특정한 날에 몰리는 경

우가 있다'고 각각 응답해 수강인원 제한에 불만을 나타냈다. 수강신청 인원제한에 대해 한상홍수업과장은 "이는 절대 부족한 강의실 때문이며 종합 강의동이 건설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골프장 부지에 건설될 예정인 종합강의동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나 호텔전문대축과 건물의 사용에 대한 협의의 끝내지 못해 설계도면도 그리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강의계획서가 수강신청 전에 발간되지 않은 것도 수강신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강신청 전에 각 과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백80여개

에 이르는 모든 강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의계획서 외에 별다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수강신청 변경이 더욱 어려워진다.

학자주 산하 교양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는 대학가에 제한된 강좌수이지만 강의평가를 내놓아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조한구 교심위원장(물리학과·4)은 "시간, 인력부족으로 많은 강의를 평가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강의평가 결과는 강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교양교육전담기구 필요

그리고 모든 강좌에 학년제한이 없어 교수들이 강의수준을 조절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한 강사는 "내용상 1학년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강의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상대적으로 전공과목이 적은 1학년들이 교양과목을 많이 수강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청각교육이 필요한 강의에 교육기자재 사용이 어렵거나 전화 등 야외수업에 학교차량 지원의 어려움, 시간강사 휴게실 불편 등 시간강사 복지문제가 드러나 학교의 시간강사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교육은 그 자체로서도 완성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강좌가 개설돼 이를 원하는 시간에 수강하지 못하면 교양과정 개편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교양교육을 전담할 교양과정부라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구영준 기자)

강단시론

전 수 용

(외국어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6년씩 배우고도 영어를 막상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입도 한 번 떼지 못하는 우리의 구태의연한 영어교육을 바로잡기 위하여, 전국의 대학에 실용영어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다. 너도 나도 원어민과의 접촉을 통한 효율적 영어교육을 실시하며, 이런 풍조는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까지 확산되어 있다. 이는 살아있는 영어, 쓸 수 있는 영어교육의 실천이란 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이런 교육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읽고 쓰기 위주였던 전통적 교육이 가졌던 장점을 간과하여 장기적으로는 교육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런 교육이 몇년 계속되다 보면, 내국인 영어선생, 더구나 영문학 교수라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별로 담당할 만한 역할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수십년 영어를 배우고, 수년간 영어를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 영문학 공부, 그중에도 영어 소설 공부야말로 역시 영어를 배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중의 하나이다.

영어소설은 언어의백화점

대학교 동창중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국제 변호사 노릇을 하는 친구가 있다. 미국에서 법대를 그 것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제변호사 노릇을 하려면 유망하고, 정중하며, 논리적인 영어의 구사력이 요구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

힘인력을 가지는 흥미의 대상들 영어를 통하여 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작가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기법을 구사하기 마련인 문학작품은 강한 흥미력을 지닌다. 그중에도 소설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열중하여 빠져들다 보면 영어의 어려움을 어느새 뛰어넘고 다음을 알게 된다. 게다가 좋은 소설이라면 대개 당대 최고 수준의 문장으로 세월의 흐름과 무관하게 모방과 인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상 가능한 모든 인간생활의 양상, 감정 및 사고가 깊이 있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어떤 다른 글도 따를 수 없는 표현의 다양성을 지닌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시장터에서 사용하는 말부터 가장 지적이고 우아한 말까지도 총망라하고 있으니, 소설이란 언어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수준

실용영어와 영어소설

다. 그런데 이 친구의 영어실력은 순전히 소설 읽기를 통해서 쌓은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서 비서노릇을 하고 있던 이 친구는 근무시간이 한가한 편이었다. 회사 바로 건너편에 당시 수입사업을 펼친 법한서적이 있었기에, 이 친구는 점심시간이면 책방에 가서 대학교 시절 영문학사 시간에 제록만 들어 본 소설들을 하나 둘 사서 읽기 시작한 것이 2-3년 비서노릇 하는 동안에 1백권 정도는 읽었다고 한다.

그 후 유학가는 남편을 따라 도미하여, 어느날 심심풀이 삼아 토를 시험을 한 번 쳐보았더니 성적이 6백80점이 나왔다고 한다. 이것은 원어민 수준의 점수이다. 이런 실력을 그날 책방이기가 아까워 이 친구는 법대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흔히 토를 학원에 다니는 길만이 토를시험 성적을 올리는 길이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토를 학원에서 연마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을 보는 테크닉이지, 영어실력 자체는 아니다. 나의 주장은 가장 즐거운 공부 가장 효율적인 공부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패션 잡지를 보고 영어를 배우고, 어떤 남학생은 '플레이보'지를 보고 영어를 배웠다고 한다. 나는 이것이 토를시험에 1년씩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영어 학습법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를 고통없이 배우는 방법은 자기에게

요리를 잘 하려면, 많은 고급요리를 먹어 보고 접해보아야 한다. 언어의 구사도 마찬가지이다. 훌륭한 문학유산, 수려한 문장들을 접하면 사람만이 바르기도 품위있는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또한 그 사회에 대한 다양한 글 속에서 접하는 문화에 대한 통찰은 그 나라 사람과의 교류를 훨씬 부드럽고, 깊이 있으며, 친밀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일류 국제화를 위하여

읽기와 쓰기를 통한 충분한 영어실력, 영어권 국가들의 문화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갖추고 있다면, 일류 정도의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하면, 원어민과의 접촉에서 거의 불편이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의 언어 구사력은 사고의 깊이와 감정의 폭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어휘력도, 문장구조의 다양한 구사력도 문화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이 앵무새같이 영어회화만 배운 경우에 그 사람은 항상 유한한 수준의 영어밖에 구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제화가 새로운 시대의 생존방법이라면, 그리고 국제화의 열쇠중의 하나가 영어의 능숙한 구사라면, 우리는 3류의 국제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1류의 국제화를 할 것인가?

인터뷰

한상홍 서울캠퍼스 수업과장

결쳐 1백85개의 강의로 증설하였다. 교양과목 수강인원 제한때문에 수강신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강의실 부족이 그 원인이다. 강의실 문제는 중

이 정경대 전산실 앞에서 전날 밤부터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등 불편함이 크다. 다른 단대 전산실을 개방할 계획은 없는지. 다른 단대 전산실을 개방할 수도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3학점 교양강의는 3시간 연강이라 수강에 어려움이 따르는 데, 3학점 전공강의의 경우 1시간 반씩 나누어 진행하지만 강사확보가 중요한 교양강의에 있어서 강사들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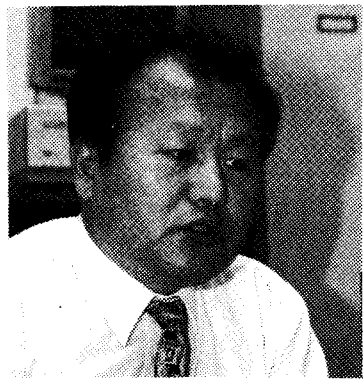
내년부터 매학기 C·R·S 인정시험 실시

합 강의동이 완공되면 나아지리라 본다. 또한 지금 3~4학년의 전공이수학점이 55학점으로 낮춰지면서 이미 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이 다시 교양강의를 신청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3~4학년이 졸업하면 수강신청이 지금보다 수월할 것이다. 수강신청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학교 LAN망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번에 2백명 정도가 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LAN망 증설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전산실 외에 학내에 설치되어 있는 LAN망과 PC통신을 이용해주기 바란다.

동문제를 고려해 3시간 연강을 하고 있다. 교양과정 개편때 거론됐던 C.R.S.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내년부터 매 학기마다 C.R.S.인정 시험을 실시해 졸업성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작년 교양과정 개편의 의의는 무엇이었나. 개편 전에는 계열교양이 있어서 각 단대로 배정된 교양과목만 수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목 선택의 폭을 늘리기 위하여 계열교양을 폐지하고 70과목이었던 강의를 8개 영역에

콘택트렌즈 초보자에게-
바슈·롬으로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143년 전통과 앞선 기술로 안전한 렌즈
인간의 눈만을 연구해 온 바슈·롬의 역사와 앞선 기술로 만듭니다.

0.035mm 두께로 편안한 렌즈
이물감을 줄이고 산소투과율은 높이고 -
바슈·롬 콘택트렌즈, 0.035mm까지 얇아졌습니다.

앞선 공법으로 믿을 수 있는 렌즈
깨거나 갈라지지 않고 만든 바슈·롬 콘택트렌즈-
첨단기술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눈을 생각하신다면-
콘택트렌즈에서 관리용액까지 바슈·롬 하나로!

바슈·롬 콘택트렌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다!

바슈·롬 일회용 콘택트렌즈
일회용 렌즈도 역시 전문회사 바슈·롬!
2주일까지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바슈·롬 다목적 용액
세척, 헹굼, 소독, 보존을 하나로!
콘택트렌즈 관리가 너무 간편해졌어요!

BAUSCH & LOMB
Contact Lens System

전국 1대 및 안전센터에서
바슈·롬 공식 대리점
마스크를 확인하세요

02-556-2081 (주)바슈·롬
02-556-2082 (주)바슈·롬
02-556-2083 (주)바슈·롬
02-556-2084 (주)바슈·롬
02-556-2085 (주)바슈·롬
02-556-2086 (주)바슈·롬
02-556-2087 (주)바슈·롬
02-556-2088 (주)바슈·롬
02-556-2089 (주)바슈·롬
02-556-2090 (주)바슈·롬
02-556-2091 (주)바슈·롬
02-556-2092 (주)바슈·롬
02-556-2093 (주)바슈·롬
02-556-2094 (주)바슈·롬
02-556-2095 (주)바슈·롬
02-556-2096 (주)바슈·롬
02-556-2097 (주)바슈·롬
02-556-2098 (주)바슈·롬
02-556-2099 (주)바슈·롬
02-556-2100 (주)바슈·롬